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19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9. 23.

발 의 자 : 신정훈 · 임미애 · 김문수
박희승 · 안규백 · 김현정
차지호 · 조인철 · 양부남
김영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단속 수치에 해당하였는지 알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사건이 발생함.

이에 누구든지 술의 영향으로 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운전 당시의 술의 영향의 유무 또는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것, 현장을 떠나 신체에 보유하는 술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, 그 밖에 그 영향의 유무 또는 정도가 발각되는 것

을 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흠결을 보완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44조 및 제148조의2).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누구든지 술의 영향으로 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운전 당시의 술의 영향의 유무 또는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것, 현장을 떠나 신체에 보유하는 술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, 그 밖에 그 영향의 유무 또는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
제148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그 운전 당시의 술의 영향의 유무 또는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한 자, 현장을 떠나 신체에 보유하는 술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자, 그 밖에 그 영향의 유무 또는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4조(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) ① ~ ④ (생략)	제44조(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⑤ <u>누구든지 술의 영향으로 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운전 당시의 술의 영향의 유무 또는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것, 현장을 떠나 신체에 보유하는 술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, 그 밖에 그 영향의 유무 또는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</u>
⑤ (생략)	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제148조의2(벌칙) ① ~ ④ (생략)	제148조의2(벌칙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⑤ <u>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그 운전 당시의 술의 영</u>

향의 유무 또는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한 자, 현장을 떠나 신체에 보유하는 술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자, 그 밖에 그 영향의 유무 또는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